●解 說●

電氣·에너지大賞 制定의 背景과 그 內容

咸 倫 相

韓電에너지計劃部長

1. 電氣·에너지 大賞 制定 背景

에너지에 對한 관심도가 最近에 와서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賦存資源이 빈약한데다가 에너지 수요는 經濟成長, 국민생활수준의 向上, 인구증가등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 대부분을 해외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데 起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해외 依存額은 년간 무려 70億$에 달하고 있어 國際收支의 악화는 물론 外債누증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에너지 쓰임새에 있어서도 1980年 불변가격표시 GNP 1000$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원단위가 1970~1973年 중 년평균 0.68에서 1974~79年중 년평균 0.64로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기 침체를 겪었던 1980年에는 0.72로 오히려 높아졌다.

그후 경기회복과 함께 에너지 원단위는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여 1983年에는 0.66으로 떨어졌으나 日本의 0.32(1982年), 서독의 0.38(1982年)에 비해서는 아직도 2배이상 높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미국의 0.56(1982年)에 비해서도 20%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제1차 석유파동이후 에너지 절약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온 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는 점차 向上되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에너지 使用合理化등을 통해 에너지 消費를 줄여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需要를 마냥 輸入으로 充當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의 자체 해결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의 合理化에서 출발하여 에너지技術 및 代替에너지 개발에 이르기까지 온갖 지혜를 다 짜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부응하여 韓電은 國內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公企業으로서 국내 에너지 産業을 주도해야할 위치에 있으며 시기적으로 보아도 國民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보다 깊이 심어 주어야 할시점에 와있음을 감안 이와 때를 맞추어 電氣·에너지 大賞制度를 制定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가 1961年度에 石油換算으로 10百萬屯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해 작년 한해동안 54백만屯으로 5배나 급증한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이 賞은 韓電이 施賞에 따른 費用과 賞金을 위한 基金造成을 하여 動力資源部, 電氣協會와 공동後援아래 京鄕新聞社가 주최하게 되는데 명실공히 에너지 分野에 있어 최고 영예로운 賞이며 국민적인 賞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2. 電氣·에너지 大賞의 目的

에너지 分野라 함은 電氣·가스·石炭·石油등과 앞으로 開發될 미래의 에너지까지 그 범위가 무한하다.

이 賞의 목적은 에너지 각 분야에서 공적이 많거나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를 뽑아 施賞함으로써 에너지 産業分野 및 國家 經濟 發展에 기여함에 있다.

즉 에너지 全 分野를 망라하여 技術發展 및 技術蓄積을 유도하며, 에너지의 生産·供給 및 使用의 合理化를 도모하고, 에너지 消費節約을 通하여 海外 에너지 依存度 減少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데 있다.

아울러 國民에 對한 봉사 수준을 向上시키고 에너지設備 및 기자재의 國産化率 提高와 함께 에너지 관련분야 연구 및 발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있다.

3. 基金의 造成

電氣·에너지 大賞의 基金은 작년 4月 韓電이 大統領각하로 부터 하사받은 원가절감 특별상금 50億원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電力人을 위한 電力大賞(가칭)을 制定하자는 취지아래 10 億원을 별도 基金으로 확보함으로써 출발 되었는데 이 基金을 마련한 韓電 朴正基 社長은 국가경제발전과 직결하는 에너지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電力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全体를 망라해야 한다는 뜻을 表明, 시상 대상이 에너지 全 분야로 확대되었다.

10億원의 기금은 장기개발신탁에 적립하였으며, 이로부터 생기는 년간 1億1千만원의 이자소득으로 시상금과 대회 운영 경비를 충당하게 된다.

4. 施賞部門

電氣·에너지 大賞은 電氣 및 기타에너지 분야의 技術開發部門, 에너지節約部門, 에너지學術부문 國民奉仕부문, 학생작품부문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施賞된다.

△技術開發부문은 왕성한 연구개발의욕으로 에너지 분야의 技術革新, 新工法 및 管理技法개발로 원가절감, 주요 기자재의 국산화로 국익을 도모한 개인이나 단체

△에너지 節約부문은 에너지 절약시책 실천과 에너지 절약형 機器개발등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크게 공적이 있거나 에너지 生産·供給 및 利用에 있어 에너지 절약에 크게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

△에너지 學術부문은 에너지 분야의 우수연구 논문, 저작이나 발명, 연구논문을 발표한 개인이나 단체

△國民奉仕부문은 에너지의 行政具現 및 國民奉仕를 위한 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에너지의 생산 공급 및 安全사고 예방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각각 시상된다.

그리고 學生작품부문은 에너지 産業발전과 에너지 절약등을 소재로 한 초·중·고교생의 수기 또는 작문(국교생 200자 원고지 10매이상, 중·고교생 30매이상) 大學生 논문(200자 원고지 50매이상) 초·중·고 대학생의 표어, 포스터의 우수 작품에 대해 시상하게 된다.

한편 공적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國民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 賞의 種類 및 賞金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이나 학교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접수된 사람이나 단체, 작품에 대하여는 경향신문사가 부문별로 위촉한 斯界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상자가 선정되며 7月2日 10時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시상식을 갖게 된다.

賞은 大賞, 本賞, 奬勵賞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예의 大賞은 全 부문에서 가장 공적이 현저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나 단체에게 1천만원의 상금이 시상되며 각 부문별로 본상 1명에 대하여는 상금 5백만원 (국민봉사부문은 2백만원), 장려상 약간명에 상금 2백만원(국민 봉사부문은 1백만원)이 시상된다.

한편 學生부문에서는 대학생에게는 우수상에 1백만원, 가작에 40만원, 중·고교생은 우수상에 장학금 30만원, 가작에 장학금 20만원, 국민학생은 우수상, 가작에 상패및 부상을, 표어는 초·중·고·대학생 공히 상패 및 부상이 시상되게 된다.

아울러 電氣·에너지 大賞을 비롯한 기술개발, 에너지절약, 에너지學術, 국민봉사부문 시상자는 정부에 최고 훈격의 산업훈장을 추천하여 내년도 電氣産業進興촉진대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6. 맺는 말

世界 각국에서는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기술 개발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기술 및 대체에너지개발은 제쳐두고 에너지 消費측면에서만 보아도 先進國에 비하여 미흡하다.

에너지의 수요가 곧 外債와 직결되는 우리네 형편에서는 우리들이 자주쓰는 생활 필수품에 조차 外貨 費用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화 비용의 대부분이 에너지 비용임을 감안할 때 소비 측면에서도 반성의 여지가 많이 있다.

즉 무심코 흘려 보내는 수도물 가운데에도 26.6%의 외화가 지출되고 심지어는 쌀 한가마에도 4달라가 넘는 외화를 외국에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輸入비용중에는 상당한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느끼지 못하고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다 산업구조마저 에너지 多消費형으로 되어 있어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며 에너지 기술역시 낙후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電氣·에너지 大賞이 에너지 산업분야의 質的·量的成長에 미치는 영향은 이 大賞제도가 앞으로 정착됨에 따라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國民들로 하여금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국가경제를 크게 좌우할 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해 기술혁신 및 절약방안 발굴등 일련의 활동을 本 대상 시상을 계기로 활발히 전개해 나아가야 하겠다. *

알 림

資格名稱変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부칙 제 2 항에 의거 ('83. 12. 31 개정)
전기분야 기술자격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종 전 자 격 명	현 행 자 격 명	비 고
전기안전기사 1 급	산업안전기사 1 급	
전기안전기사 2 급	산업안전기사 2 급	
소방설비기사 1 급 (1류 - 7류)	소방설비기사 1 급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2 급 (1류 - 7류)	소방설비기사 2 급 (전기분야)	
일반기계기사 1 급	기계기사 1 급	종전 보이라터빈주임 기술자
일반기계기사 2 급	기계기사 2 급	〃